

뉴미디어시대의 정치혁명과 그 의미*

한수경**

I 서론

작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해적당(Piratenpartei)의 화려한 지역의회 진출과 작년 10월 서울에서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 선거참여가 정치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은 그간 젊은 세대에 가해졌던 정치무관심에 대한 비판을 일소해 버리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신세대들의 열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재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시대적 정치풍토에 대한 신세대의 불만을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례로 기존정치에 대한 개혁요구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이러한 신세대의 정치참여에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엔 정치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실현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세대들이 창당한 해적당은 의회진출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 반면에, 한국의 신세대들은 기존 정당 후보가 아닌 시민사회의 무당파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의 한계는 지난 4.11 총선에서

* 이 논문은 2011년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추계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확대 보완한 것이며 발제문의 일부 내용은 미디어비평사이트 “미디어스” 2011년 12월 6일과 12월 13일자 필자의 칼럼 “한수경의 미디어의 세계, 세계의 미디어”에도 게재되었음을 밝힌다.

** 마이그린뉴스/인천대

도 드러나듯이,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높은 소수당들의 의회진출은 한국 선거제도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미비한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 정치의 높은 벽을 젊은 세대는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기존의 정당정치에 대한 거부와 함께 그들의 정치적 행위가 구시대의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뉴미디어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정치혁명을 가져 온 해적당의 등장배경과 그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현상을 반추해보고, 동시에 한국의 정치 및 미디어환경에서 신세대들의 정당정치의 혁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II. 해적당의 등장과 그 배경

1. 스웨덴 해적당과 국제해적당의 출현

해적당은 2006년 1월1일에 ‘Piratpartiet’이란 이름으로 스웨덴에서 IT-사업가인 리카르드 팔크빙에(Rickard Falkvinge)¹⁾에 의해 처음 창당되었다. 당의 이름인 ‘해적’은 스웨덴에서 당시 저작권을 이슈화하고 주로 논의했던 단체인 ‘Piratbyrån (Pirate Bureau)’의 이름과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복제를 지칭하는 ‘해적판’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강화된 저작권을 비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해적당은 무조건적인 불법복제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제의 지속적인 허용과 그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며, 정보교환에 대한 일방적인 범죄화를 거부하고 있다.²⁾ 스웨덴 해적당은 저작권

1) 리카르드 팔크빙에(Rickard Falkvinge)는 1972년 태생으로 16세 때 처음으로 컴퓨터 회사를 설립했고,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했으며,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매니저로 2002년 초까지 일하기도 했다. 2005년 가을 그는 파일공유, 저작권 및 특허권을 핵심으로 한 정당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12월 15일에 도메인 ‘piratpartiet.se (The Pirate Party)’을 등록하고, 2006년 1월 1일에 해적당 웹사이트를 공개하면서 창당되었다. Wikipedia, “Rickard Falkvinge.” http://en.wikipedia.org/wiki/Rickard_Falkvinge (2012-04-25)

개혁 및 특허시스템 철폐, 프라이버시 존중 등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법규들과 소위 'Data Retention Act' 등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³⁾ 즉 저작권 개혁, 특허시스템 철폐, 그리고 프라이버시 존중, 이 세 가지를 스웨덴 해적당의 기본원칙들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정보의 자유와 국가 행정부의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해적당이 등장했지만, 얼마 전까지 이 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컴퓨터 해커들의 모임 정도에 불과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적당의 정치적 요구는 해커조직인 Computer Chaos Club(CCC)⁴⁾이나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⁵⁾등이 추구하는 해커문화와 가치인 정보의 자유, 지식공유,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정부의 투명성 등의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적당의 인기는 뉴미디어 세대들의 정보공유에 대한 욕구와 행위들이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과 저작권법 강화로 인한 반작용으로 더욱 높아졌다. 스웨덴 경찰이 2005년 'Bittorrent-Tracker "The Pirate Bay"'와 다른 사이트들이 호스팅하고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강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해적당원의 수는 부쩍 증가했다. 또한 2009년 4월 유럽공동체 법규의 하나로 무체재산권의 보호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법규, 즉 "IPRED-Gesetze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가 발효됨에 따른 반발로 해적당원의 수가 또 한 번 대폭 증가했다. 현재

2) Piratenpartei Deutschland, "Warum wir Piraten brauchen - Die Geschichte der Piratenpartei Schweden." http://www.piratenpartei.de/Geburtstag/Piratenpartei_Schweden (2012-04-25)

3) Piratpartiet, "International." <http://www.piratpartiet.se/international> (2012-04-25)

4) 'Computer Chaos Club(CCC)'은 1981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해커조직으로 활동이 활발하다. 해적당의 정치적 요구인 정부의 투명성,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보호 등은 이미 이 해커클럽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CCC는 유럽의 가장 큰 해커단체로 현재 2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있다. Computer Chaos Club 웹사이트 참고할 것, <http://www.ccc.de/en/home> (2012-04-25)

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1990년에 탄생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 단체 또한 디지털 권리를 추창하는 비영리 국제단체로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약법 개정을 이슈화하고 있다. EFF 사이트 참조. EFF, "About EFF," <https://www.eff.org/about> (2012-4-27)

스웨덴 해적당원들의 수는 5만 명이 넘어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⁶⁾ 정치 이념적으로 해적당은 좌파나 우파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갖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을 모델로 곧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연쇄적으로 해적당이 창당되면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이에 해적당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엔 국제해적당 조직인 PPI(Pirate Parties International)가 비정부기구(NGO)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40개가 넘는 수의 해적당들이 각 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정식 등록된 해적당들 대부분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지만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하고도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모로코, 튀니지, 네팔 등의 국가에서도 해적당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2009년 스웨덴 해적당은 스웨덴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7.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총 18개의 의석 중 한 개의 의석을 확보했으며, 2011년 의회 의석수가 총 20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 개의 의석을 더해 현재 두 명의 해적당원이 유럽의회에 진출해 있다. 더욱이 작년 베를린 선거에서의 활약은 해적당이 기존의 정당정치를 단순히 약 올리는 수준을 넘어 주정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래 전부터 유럽에선 정당정치의 쇠퇴가 선거 때마다 이슈화되면서, 정치학에서는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선거 상황들을 관찰해보면 지지계층이 확고했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당인 소위 국민당들이 이전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기존 정당들이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불만들이 축적되면서 일각에서는 시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들의 횡포로 점철된 정당독재정치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진부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참여 거부로 표출되었고,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회의

6) Piratenpartei Deutschland, http://www.piratenpartei.de/Geburtstag/Piratenpartei_Schweden (2012-04-25)

와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2. 뉴미디어 세대의 정치적 요구

1) 실종된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위축된 시민권의 강화

해적당이 국제적으로 빠른 반향을 일으킨 것과 여러 선거에서 획기적인 패거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특히 '자유'에 대한 정치 및 경제 권력자들의 자유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치행위는 세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반대로 빈부의 격차만을 급속도로 벌어지게 한 정치의 실패에서 해적당의 활약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해적당이 요구하는 '자유'의 의미는 세계화 논리 주창자들의 '자유'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 논리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및 탈규제화(Deregulation)를 내세우며 공기업과 공공재를 민영화하고, 다국적기업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모든 국가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이윤확장을 보장해 주었다. 더불어 기존의 복지정책이 시민들의 나태함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함께 세계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으며, 따라서 북유럽에서조차 사회보장제도의 후퇴는 필연적임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벌어진 빈부의 격차에 대해선 시민들의 높아지는 불만에도 각 국의 정부들은 함구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2007/8년 세계경제(금융)위기에도 국가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기 원인제공자들인 기업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급박함을 들며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사유화해 이익을 챙기고, 경제적 손실은 사회화해 불어난 빚은 결국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사건들을 세계시민들은 어이없이 목격해 왔다.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방만 운영이 빚어 낸 금융위기에도 월 스트리트의 보너스 파티가 시사하듯이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고, 기업들은 오히려 금융파탄에

대한 대가를 정부의 자금수혈로 톡톡히 보상받았다. 시민들의 척박한 삶은 아랑곳없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천박한 모습에 세계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고용의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늘려 삶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왔지만 그 해결책은 미비했다. 그간 각 국의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허리띠 졸라매기 작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세계시민들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99%의 반란으로 일컬어지는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은 1%의 금융, 경제적 탐욕의 상징인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세계 금융시스템규제와 천박한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시민들은 탐욕적 자본주의에 돌을 던지며 1%가 아닌 99%의 시민을 위한 참민주주의의 정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각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공권력으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명하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사이버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검열은 정당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은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인터넷 뉴미디어 세대에겐 당연히 숨 막히는 국가의 폭력이며, 이는 어느덧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형국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공권력에 의해 검열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야 할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보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기밀에 붙이고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의 자유를 외쳤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까지도 비밀리하며 은폐해 왔다. 또한 정치권력과 기업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주류언론들은 감시기능의 역할을 외면하고 오히려 권력의 일부가 되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이어 이제 ‘제4의 권력’으로 불린지 오래다.

이러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망기한 무기력한 세계 주류 언론과는 달리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내부고발자들이 유출한 각 정부기관 및 군부와 다국적 기업들의 기밀정보들을 줄줄이 공개하면서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각 정부들이 은폐했던 또 계속해서 은폐하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과 비윤리적 행위들이 일거에 폭로된 것이다. 시민들의 눈은 가려진 채, 각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덮어 버렸고, 시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통한 정부들의 투명성 요구가 세계시민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것이 또한 해적당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2) 저작권 개혁과 특허시스템 철폐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가져다 준 정보공유의 편리함이 특히 기업의 이윤추구에 장애물로 인식되면서 저작권법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됨과 동시에 더욱 강화되어 왔다. 영화 및 음악 DVD와 CD 불법복제로 지칭되던 해적판에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다운로드가 쉬워졌고, 결국 음반 및 오락산업 기업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서 저작권 강화를 요구해 왔다. 결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즉 TRIP(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1994)가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WCT(WIPO Copyright Treaty, 1996)와 WPPT(WIPO Performance & Phonogram Treaty, 1996) 등 국제적으로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산업(공업)재산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기존의 파리조약이나 베른조약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국제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근거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산업국들의 강한 의지의 표명⁷⁾”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저작권, 즉 카피라이트(Copyright) 강화와 표준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일어났다. 카피레프트 1975년에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⁸⁾을 칭했던 것으로, 그 후 1984년 소프트웨어의 자유이용과 협업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창설자인 스텔먼(Richard Stallman)에 의해 다시 활성화 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일부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7) 한수경, “Copyright냐, Copyleft냐?: 저작권 따져보기 3.” 미디어스, 2011년 7월 15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0>

8)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서 ‘자유’의 의미는 가격이 ‘무료’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GNU: GNU 운영체제. <http://www.gnu.org/home.ko.html> (2012-04-30)

domain⁹⁾으로 지정하고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퍼블릭 도메인이 될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다시 저작권을 갖는 소프트웨어로 탈바꿈되는 폐해를 우려해 카피레프트가 선호되고 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차이는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작권을 지닌 창작물의 사용방식에 대한 견해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창작물의 이용을 허가 또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에,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허가 없이도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및 제2의 창작을 허용하고 동시에 협업을 권장하고 있다.”¹⁰⁾ 물론 원작자의 창작물을 이용한 제2, 제3의 창작자의 저작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카피레프트 조건을 허용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운동가들의 주장은 “창작물은 이미 이전 세대가 창작한 것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한 개인 및 단체나 기업의 소유만이 아니라 공공의 소유로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에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¹¹⁾

해적당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산업(공업)재산권의 일부인 특허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허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산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대부분 경제산업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발전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생물학적 특허의 일부인 유전자 특허를 기업에게 허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창작물이 아닌 자연물에는 특허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유전자 특허가 특정 기업에게 주어져 인간의 유전자 통제뿐 아니라 유전자 실험독점권도 소유하게 된다. 또한 의료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정 식물의 성분도 특허로 인정되면서 인도나 아프리카 등 세계지역의 원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온 식물들까지 기업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역

9)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저작권을 상실한 경우, 혹은 저작권을 인정하기 부적당한 것 등이다. Wikipedia: public domain.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domain (2012-04-30)

10) 한수경, “Copyright냐, Copyleft냐?”

11) Ibid. & GNU, “What is Copyleft?” 참조할 것, <http://www.gnu.org/copyleft/> (2012-04-30)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많은 이권이 산업국들의 기업들에게 돌아간 반면에, 세계시민들에게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사생활 침해가 서슴없이 자행되어 왔다. 인류의 공동자산은 거의 사유화되어 축소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정당화시켜 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모든 창작물과 심지어는 창작물이 아닌 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에도 특허를 합법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글, 그림, 사진, 음악 및 영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저작권 강화로 세계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은 금지되고 불법화되어 공공의 영역들은 축소되었다. 뉴미디어 세대가 기대한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 대신에 그들의 행위에 ‘불법’이란 명예를 씌우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소수를 위한 자유일 뿐, 다수 시민들에게 ‘자유’의 제약인 것이다.

III. 독일 해적당의 등장과 정치적 의미

1. 독일의 정치적 세대교체: 녹색당에서 해적당으로

작년 9월 18일 독일 베를린 주 지역선거에서 해적당(Piratenpartei)이 8.9%의 표를 얻어 베를린 주정부 의회의석 총 149개 중 15석이나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당정치 경험이 전무한 젊은 인터넷 세대로 구성된 해적당이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 기존 정당정치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당시 당원들의 평균나이는 약 29세로 20대와 30대의 지지기반을 축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시의회의 의석을 161석이나 차지했다. 지난 베를린 선거에서 이러한 성공을 거두리라곤 해적당원 지도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더욱이 기존의 정당들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며, 우익보수 연립정부의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은 한 개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처욕을 당했다. 주류 언론들 또한 해적당을 컴퓨터 해커들의 모임쯤으로¹²⁾ 간주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터라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번 해적당의 등단은 마치 30년 전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생태계보호, 반핵운동 및 시민권 강화 등의 이념을 주장하며 등장한 'One Issue Party'였던 녹색당의 출현이 재현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후기 68운동 세대로 일컬어지는 신세대를 주축으로 한 녹색당은 기존 정당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의 급진적인 사고와 평화주의적 이념들과 함께 그들의 카오스적인 전당대회와 흡사하게 당원들의 걸모습 또한 자유분방해 '카오스군단'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녹색당이 정식으로 창당되기 전인 1970년대 녹색운동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까지 인식되기도 했다. 누구도 '반정당적'인 녹색당이 기존의 정당정치체제에서 그리 오래 생존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녹색당의 출현은 단지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마치 히피족들의 모임과 같은 카오스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사회민주당, 즉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PD)과 함께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차에 걸쳐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독일정치에 녹색당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녹색당의 근본이념인 반핵 및 평화주의와는 달리 코소보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개입과 핵발전소 폐쇄 등을 확고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기존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의 존립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패권전쟁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미국의 압력 속에서 평화주의를 강력하게 실현시키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버렸고, 글로벌 환경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내세워 원전폐쇄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에너지산업분야 기업들의 로비와 새로이 권력을 잡은 우익보수와 정당들의 논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들을 강력히 설득시키지 못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유출로 체르노빌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반핵운동이 다시 주요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었다. 녹색당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되묻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일본 원전사건으로 핵의 위험성에 대한 세계시민의 경각심이 다시 부활했으며, 녹색당과 반

12) 독일의 해커조직인 'Computer Chaos Club(CCC)'의 활동역사가 30년이나 된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적당이 독일선거에서 획기적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Computer Chaos Club 참고할 것, <http://www.ccc.de/en/home> (2012-04-25)

핵 시민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반핵을 비롯한 환경운동과 평화주의는 더 이상 한 세대의 소수정당인 녹색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녹색당의 이념들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어느덧 시민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가 녹색당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집권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 즉 기민련(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과 제1야당인 사민당(SPD)이 국민당(Volkspartei)으로서 폭넓은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상실해 버리면서 기존 정당정치 쇠퇴가 논의되는 가운데, 작은 정당들이 점차 표를 얻고 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녹색당은 이제 젊은 신세대당에서 기성정당이 되었다. 녹색당원들의 평균연령은 46세로 다른 정당들의 평균연령보다 여전히 젊고, 여성당원들의 비율도 좌당을 제외하고는 37%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당대표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대1로 동등하다.¹³⁾ 또 열린 이주민정책에 어울리게 터키출신의 외츠데미어(Cem Özdemir)가 로트(Claudia Roth) 여성 당원과 함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적이지만,¹⁴⁾ 진보당의 이미지가 이제 ‘역사 속의 신세대 당’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486세대와 같이 1960년대 태생들이 주축을 이루던 녹색당은 1984년에서 1989년 당시만 해도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다.¹⁵⁾ 그 후 25년이 지난 현재 당원들의 평균연령은 거기에 거의 20세가 더해졌다. 당원들의 평균연령의 변화만 보더라도 과거의 신세대 혁명인 녹색당은 더 이상 뉴미디어 세대를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20, 30대 젊은 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혹은 30년 전의 정당정치의 혁명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다시 새로운 신세대 당이 출현했다. 바로 해적당이다.

13) 각 당 회원들의 평균연령과 여성비율: 기민련(CDU) - 56세/25.5%; 사민당(SPD) - 58세/31.1%; 자민당(FDP) - 51세/22.8%; 녹색당(Die Grünen) - 46세/37.4%; 좌당(Die Linke) - 62세/37.7%, 해적당(Piratenpartei) - 29세/약 10-15% 예상. Benjamin Gürkan, "Probleme der Parteien". Politiblog, 2010.08.08, <http://politicom.de/blog/2010/08/probleme-der-parteien/>

14) 녹색당 및 Wikipedia 사이트 참조. <http://www.gruene.de/> & http://de.wikipedia.org/wiki/B%C3%BCndnis_90/Die_Gr%C3%BCnen#cite_note-174 (2012-04-25)

15) freitag.de, "Die Grünen - eine Abiturientenpartei," 2011.03.31, <http://www.freitag.de/wochenhema/1113-1113-06-07-kasten-diw>

서로 간의 핵심 정치프로그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적당은 녹색당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젊고 카오스적이며, '뭔가 다르다'라는 이미지 등 유사점들이 많아 방송 정치토크쇼에서도 이들을 '녹색당의 아이들(Kinder der Grünen)'이라고 공공연히 일컫기도 한다. 실제로 방송에서 인터뷰한 해적당원들의 부모들이 녹색당원이거나 그와 유사한 정치신념을 갖고 있는 부모들인 것이 어렵지 않게 포착된다. 해적당은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불만표시로 해적당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프로테스트당(Protestpartei)'으로 불리기도 한다. 재미있게도 기성정당 정치에 대해 비판하며 출현한 녹색당이 이젠 신선함이 없고 기성정당이 되어버린 녹색당을 비판하며 등장한 해적당을 향해 '정치 초보자', '여성당원의 절대부족' 혹은 '정당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지만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해적당의 모습에서 '녹색당의 젊은 날의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방송들이 해적당을 소개할 때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녹색당 등장 당시의 모습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정치역사의 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 해적당의 혁명적 정치개혁

스웨덴 해적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이어 작년 9월 베를린 선거에서 해적당의 성공적인 의회진출은 획기적 사건이었다. 집권보수여당인 기민련(CDU)은 23.4%(39의석), 노조를 기반으로 한 사민당(SPD)은 28.3%(49의석), 녹색당(Grüne)은 17.6%(29의석), 좌당(Linke)은 11.7%(19의석), 해적당(Piraten)은 8.9%(15의석)의 표를 얻으면서 베를린 주정부의 의석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¹⁶⁾ 해적당은 정치성향이 엇비슷한 좌파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의 표까지 획득했다.¹⁷⁾ 기민련(CDU)과 연립정부를 구

16) Spiegel, "Berlin-Wahl 2011."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786376,00.html> (2012-04-25)

17) ARD에 따르면, 해적당은 사민당(SPD) 지지층 14,000 표, 좌당(Linke) 지지층 13,000 표, 녹색당(Grünen) 지지층 17,000 표, 그리고 기존의 투표무관심 층 23,000 명의 표를 얻어낸 것으로

성하고 있는 우파 정당인 자민당(FDP)은 겨우 1.8%를 얻어 최소득표율인 5% 장어를 넘지 못하고 극소수와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자민당이 의회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집권여당인 기민련이 4분의 1의 표도 얻지 못해 전체적으로 우익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우파뿐 아니라 중도좌파 정당도 30% 미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35%에서 40% 이상을 차지했던 황금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파 정당 간 또는 좌파 정당 간의 연립정부 설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¹⁸⁾

뿐만 아니라 해적당의 인기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했던 일부 시각과는 달리 해적당의 위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3월 25일에 있었던 자란트(Saarland) 주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해적당은 기민련(35.2%/19의석), 사민당(30.6%/17의석), 좌당(16.1%/9의석), 해적당(7.4%/4의석)과 녹색당(5%/2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작년 베를린 선거가 단지 진보적인 대도시에서만 현상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이번 선거에선 해적당은 '부모당' 격인 녹색당을 앞서고 있으며, '자유'를 외치는 우익정당인 자민당의 업데이트당이 해적당이라고 하는 해적당의 주장처럼¹⁹⁾ 올드버전인 자민련은 겨우 1.2%의 득표율을 보여 지방의회에서 사라져갔다.

더욱이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²⁰⁾ 해적당은 다른 지방의회뿐 아니라 연방

조사되었다. ARD - Anne Will, "Piraten entern Berlin - Meuterei auf der 'Deutschland,'" 2011.09.21.

18) 이러한 변화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좌파 정당 간의 연립정부 설립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현 집권여당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어부지리로 다음 임기에도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의 '자유'의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유" 즉, '경제를 위한 자유'로 인식되는 반면에, 해적당이 주장하는 자유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자유'로 인식되고 있다. ZDF log in, "Sind die Piraten die besseren Liberalen?" 2012.04.28.

20) 2012년 4월 19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CDU/CSU 35.4%, SPD-27%, FDP-3.8%, Grünen-13.3%, Linke-7.0% 그리고 Piraten 10%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적당 지지율만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ahlumfrage.de, "6 aktuelle Wahlumfragen im Vergleich - Bundestag" (2012.04.19), <http://www.wahlumfrage.de/?p=5878>

의회에 진출할 경우 11%-13%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제3당의 위치에 있는 녹색당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해적당은 우파도 좌파도 아닌 당으로 모든 정당들의 불만세력들을 흡수하고 있지만 특히 좌파성향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 규제의 자유를 외쳤던 자민당(FDP)은 독일 정치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오래도록 자민련 지지자들이었던 노년층도 해적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해적당은 유권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해적당의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당원들의 평균나이도 그 사이에 37세로 높아졌다.²¹⁾

이러한 해적당의 활약으로 어린이 시사월간지 다인슈피겔(Dein Spiegel)²²⁾5호엔 “해적들을 조심하라!(Achtung Piraten!)”라는 커버스토리와 함께 “해적들이 독일을 점령한다(Piraten erobern Deutschland)”라는 주제로 심층보도하며, “해적당원들은 많은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얻고 있다. 해적당이 왜 그러한 인기를 얻는지에 대한 5 가지 이유”²³⁾를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해적당의 인기에 ‘어린이 언론’들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언론들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해적당의 높은 인기에 대해 경이로움과 함께 그 이유들을 분석하느라 온갖 시사프로그램 및 정치 토크쇼에 해적당원들이 주요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고 있어, 해적당 의원들은 ‘정치아미추어’에서 ‘스타정치인’들로 변해가도 있다. 또한 해적당원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질문에 모르면 모른다는 솔직한 답을 하는데, 이에 대해 기존 정당들의 공허한 공약과는 달리 최소한의 진실성은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독일 해적당의 경우 스웨덴 해적당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조건 없는 소득’ 혹은 ‘마약규제 완화’ 등 시민들의 자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재정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문과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

21) Sarah Marsh & Hans-Edzard Busemann, “Pirates Party’s rapid rise upsets German landscape.” Reuter, 2012.04.30,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4/30/us-germany-pirates-idUSBRE83T08G> 20120430

22) 다인슈피겔(Dein Spiegel)은 8세-12세의 연령층을 위한 어린이 시사월간지이다. 다루는 주제들은 정치, 사람, 자연, 학문, 기술, 문화, 스포츠 등 성인용 시사주간지인 슈피겔(Spiegel)과 유사하다.

23) Dein Spiegel, 5/2012, <http://www.spiegel.de/spiegel/deinspiegel/index-2012-5.html>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기성정당 정치인들은 고개를 떨구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간 저조했던 투표율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에 대한 회의와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적당이 실현하려는 ‘민주주의’는 풀뿌리민주주의(Basisdemokratie), 즉 일반시민들이 지역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이미 녹색당이 30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특이한 점은 독일 해적당은 민주주의의 신개념인 ‘리퀴드민주주의(Liquid Democracy),’ 즉 ‘액체’ 또는 ‘흐르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인터랙티브 민주주의(Interactive Democracy)’ 즉 ‘상호작용하는 민주주의’라고도 일컬어진다. 말하자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 혼합형태”²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간접민주주의에선 자신의 이익을 대리할 대표자를 선정하고, 직접 민주주의에선 모든 이익을 본인이 직접 대변해야 하는 반면에, 리퀴드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에선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사이를 흐르는 경로가 생겨난다. 각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직접 대표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신을 대리하게 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대표자는 언제나 자신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던 선거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더욱이 다음 선거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흐르며 존재하는 대표단들의 한 네트워크가 생겨나게 된다.²⁵⁾

규모가 방대해진 현대사회에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던 직접민주주의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의민주주의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민주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 후에는 중간에 의견이 바뀔 경우 다음 선거기간까지 기다려야만

24) Piratenpartei, “Liquid Democracy.” http://wiki.piratenpartei.de/Liquid_Democracy (2012-04-25)

25) Ibid.

하는 폐단이 있다. 반면에, 리퀴드민주주의에선 언제든 다시 결정을 수정할 수 있고, 또한 결정하기 어려운 의제의 경우 신임할 수 있는 지인, 전문가, 정당 등에게 대리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²⁶⁾ 예를 들면, 환경 및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녹색당에게, 세금문제는 사민당, 정보통신 및 저작권은 해적당, 노동문제는 지인인 노동법학자, 그리고 교육문제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적당은 리퀴드민주주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존 정당의 결정과정의 대안으로, 또 기존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모델로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의민주주의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따른다.

이처럼 해적당의 등장은 단지 젊은 층의 반항적인 정치행위를 넘어 전체적인 정치시스템 개혁의 요구를 의미한다. 선거참여율의 저조는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깊은 실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해적당의 선거포스터 문구처럼 젊은이들의 입에선 ‘정치는 지루하다’가 아닌 ‘정치는 정말 죽인다(Politik ist so geil)’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해적당의 등장은 뉴미디어시대에서 성장한 컴퓨터세대들은 기성정당정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자발적으로 그 대안을 찾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의정치의 몰락과 더불어 참여정치를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결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기능은 많은 미디어 학자들에 의해 찬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 등 폐쇄된 국가들이 외부에서 침투하는 정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민주화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였다. 또한 위성방송과 인터넷 등 국경을 넘는 미디어

26) Ibid. & Andreas Nitsche, "Liquid Feedback - Interactive Democracy." <http://liquidfeedback.org/mis-sion/> (2012-04-25)

어들로 인해 글로벌 공론장의 가능성까지 논의되었다.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국가 간의 거리는 축소되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의 소식들이 바로 이웃들의 이야기 처럼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사이버상에서는 더 이상의 국경도 없고 평등하며, 모든 세계시민들이 인터넷이 뿜어내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공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가들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이 세계시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냈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표현의 자유가 민주화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권력자들의 권력유지 목적으로 인터넷을 오히려 시민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 강화와 특허는 기업들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합법적 도구로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닌 일부 특정 소수의 권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고 구태의연한 정당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시스템의 혁명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경우 정치개혁에 대한 갈망과 실현은 여전히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개방, 공유, 참여의 특성이 정치적 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법제도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되고 권력자들에게 의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정치혁명에 대한 열망의 불씨를 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언론장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스웨덴이나 독일의 해적당의 활약 처럼 정당정치에 대적할만한 역량이 내재되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국의 경우 IT왕국이라고 자칭하며, 높은 인터넷 이용률과 아이폰 및 스마트폰의 이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보독점이 아닌 정보공유와 정보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 확장을 의미함에도 현 정부는 그 의미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방, 참여 및 공유를 칭하는 Web 2.0의 열린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고 시민들의 의견표출 공간이 넓어졌지만, 일명 ‘토

목건축세대' 혹은 '삼질세대'로 일컬어지는 구시대의 권력자들은 시대착오적 검열정책으로 인터넷시대를 공안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의거한 일명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실시,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 및 사이버모욕죄 추진 등 사이버상에서의 수많은 제약들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와 "국경없는 기자회"는 최근 한국을 언론이 단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인터넷 감시국' 혹은 '인터넷 검열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축으로 한 정당정치를 뒤로하고 시민운동으로 살아온 '정치 아마추어'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박 후보도 혜성같이 정치에 등장한 인물로, 그의 당선 뒤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안철수의 지원이 있었다. 베를린과 서울 선거에서 중요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20대와 30대인 뉴미디어 세대가 구태의연한 기존의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어울리는 정치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해적당의 활약과 한국의 젊은 신세대의 욕구가 정치로 표현된 것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지난 4.11 총선에서 보여준 선거결과는 젊은 층들의 새로운 정치적 요구와는 달리 한국정치의 폐해인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정치행위를 여전히 답습하는 모습이었다.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은 오히려 뉴미디어 세대와 올드미디어 세대 간의 정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정치혁명에 앞서 세대 간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성정당들은 뉴미디어시대의 정치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기득권을 위한 소수정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시민정치로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뉴미디어시대에 역행하는 'SNS 규제'와 같은 똥판지 같은 구시대적 시민통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치사를 독재정치의 역사로 물들였던 박정희의 딸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차기 대통령 후보자는 부산일보와 MBC등 언론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직시할 때 독일 해적당이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정치혁명이 과연 한국의 언론과 정치 환경에서도 실현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21세기에 20세기 뉴미디어 혁명도 경험하지 못한 듯한 세대의 미디어정책으로 신세대들을 미래에도 계속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3월 08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04월 27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05월 08일

초록

뉴미디어시대의 정치혁명과 그 의미

한 수 경

작년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젊은 세대가 창당한 해적당이 놀랍게도 의석을 차지해 지역의회에 진출한 반면에, 정치초보자이자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후보는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 선거참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승리들은 뉴미디어시대의 디지털세대가 일구어낸 ‘정치혁명’ 또는 ‘디지털혁명’으로 간주되지만, 유사점들뿐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신세대들의 투표를 통한 소극적인 정치적 행위와는 달리, 신세대들이 창당한 해적당은 정보사회의 당으로 또 국제운동의 일환으로 정보의 자유, 저작권 개혁 및 프라이버시 존중과 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들을 홍보하며 직접 실현한다는 것이다. 카오스적인 이미지를 지닌 해적당은 더 이상 해커들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해적당은 정부의 제한법규에 대해 투쟁하며, 또한 정치의 투명성을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해적당은 현 정치시스템을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정치시스템으로 변형시키려 한다. 이제 해적당은 디지털시대의 구시대적 정치시스템을 습격하며, 2011년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높아진 해적당의 인기는 독일 정치 환경 전체를 전복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고도의 디지털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왜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데 실패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해적당의 혁명적인 정치적 성공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스웨덴 및 독일 해적당, 녹색당, 정보의 자유, 저작권, 신자유주의, 풀뿌리민주주의, 리퀴드민주주의

Abstract

Political Revolution and Its Meaning in the Era of New Media

Su-Kyung Han

While in the 2011 Berlin state election, the Pirate Party founded by young generation won respectively seats in a German state parliament, a political novice and civic activist Park Won-Soon supported by young people won the mayoral election in Seoul. Both political victories were seen as 'political revolution' or 'digital revolution' created by young generation in the New Media Era. There are, however, not only similarities but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h political achievements. Contrary to digital generation in Korea who plays a passive role as voters in the election, the Pirates as a par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part of international movement promotes and realizes its own political ideologies such as freedom of information, copyright reform, and privacy. The Pirate Party with chaotic image is no longer a party representing groups of hackers. It fights against government regulations and advocates for political transparency. Furthermore, the Pirates aim to transform today's political party system into an alternative political system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Now the Pirate Party makes a raid on outdated political system in the digital era and its rapid popularity among young people since 2011 upsets German political landscape as a whole.

This paper examines revolutionary political success of the Pirate Party and its meaning in order to discuss on why young generation in high digitalized Korean society fails to establish its own political power.

□ Key words : Swedish and German Pirate Party, Green Party, freedom of information, copyright, neo-liberalism, grassroots democracy, liquid democracy

Bibliography

- 한수경. 2011. “Copyright냐, Copyleft냐? 저작권 따져보기 3.”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0> (2011.7.15)
- Andreas Nitsche. 2012. “Liquid Feedback – Interactive Democracy.” [http://liquidfeedback.org/mission/\(2012.4.25\)](http://liquidfeedback.org/mission/(2012.4.25))
- ARD, Anne Will. 2011. “Piraten entern Berlin – Meuterei auf der Deutschland.”
- Computer Chaos Club(CCC). 2012. <http://www.ccc.de/en/home> (2012.4.25)
- Dein Spiegel. 2012. <http://www.spiegel.de/spiegel/deinspiegel/index-2012-5.html>
- EFF. 2012. “About EFF”. <https://www.eff.org/about> (2012.4.27)
- freitag.de. 2011. “Die Grünen - eine Abiturientenpartei.” <http://www.freitag.de/wochenhe-ma/1113-1113-06-07-kasten-diw> (2011.3.31)
- GNU. 2012. “What is Copyleft?” <http://www.gnu.org/copyleft/> (2012.4.30)
- GNU. 2012. “GNU 운영체제.” <http://www.gnu.org/home.ko.html> (2012.4.30)
- Grünepartei. 2012. <http://www.gruene.de/> (2012.4.25)
- Gürkan, Benjamin. 2010. “Probleme der Partei.” *Politiblog*. <http://politicom.de/blog/2010/08/probleme-der-parteien/> (2010.8.8)
- Marsh, Sarah & Busemann, Hans-Edzard. 2012. “Pirates Party’s rapid rise upsets German landscape.” *Reuter*. April 30 2012.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4/30/us-germany-pirates-idUSBRE83T08G\(2012.4.30\)](http://www.reuters.com/article/2012/04/30/us-germany-pirates-idUSBRE83T08G(2012.4.30))
- Piratenpartei Deutschland. http://www.piratenpartei.de/Geburtstag/Piratenpartei_Schweden (2012.4.25)
- _____. 2012. “Warum wir Piraten brauchen – Die Geschichte der Piratenpartei Schweden.” [http://www.piratenpartei.de/Geburtstag/Piratenpartei_Schweden\(2012.4.25\)](http://www.piratenpartei.de/Geburtstag/Piratenpartei_Schweden(2012.4.25))
- Piratenpartei. 2012. “Liquid Democracy.” http://wiki.piratenpartei.de/Liquid_Democracy (2012.4.25)
- Piratpartiet. 2012. “International.” <http://www.piratpartiet.se/international> (2012.4.25)

- Spiegel. 2011. "Berlin-Wahl."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786376,00.html> (2012.4.25)
- Wahlumfrage.de. 2012. "6 aktuelle Wahlumfragen im Vergleich – Bundestag." <http://www.wahlumfrage.de/?p=5878> (2012.4.19)
- Wikipedia. 2012 "Bündnis 90/Die Grünen." http://de.wikipedia.org/wiki/B%C3%BCndnis_90/Die_Gr%C3%BCnen#cite_note-174 (2012.4.1)
- Wikipedia. 2012. "public domain." http://en.wikipedia.org/wiki/Public_domain (2012.4.30)
- Wikipedia. 2012. "Rickard Falkvinge." http://en.wikipedia.org/wiki/Rickard_Falkvinge (2012.4.25)
- ZDF log in. 2012. "Sind die Piraten die besseren Liberalen?" (2012.4.28)